

### 1. 내 기도는 왜 응답이 없을까?

많은 이들에게 기도는 하나님께 자신의 소원을 아뢰고, 삶의 짐을 내려놓는 자리로 이해됩니다. 성경 또한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권하며(빌 4:6), 하나님께서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심을 약속합니다(마 6:8; 시 34:15). 그래서 기도는 신앙인이 누리는 가장 큰 은혜 중 하나이며,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을 열고 그대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특권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깊은 본질은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말씀드리고 응답을 얻기 위한 행위에 머물지 않습니다. 기도는 무엇보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져 가는 은밀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맞춰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전과 전혀 다른 눈으로 자신을 보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기도는 그렇게 우리 존재의 방향을 하나님의 마음 쪽으로 돌려놓는 영적인 순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은 이 은혜의 비밀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에서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진다”는 후반부의 약속에 주목합니다. 그러나 이 약속이 성립되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 기도의 응답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하다’는 말은 단순한 머무름이 아닙니다. 헬라어 *meno* 는 존재의 뿌리를 내리고, 관계 안에 머물며, 사랑과 신뢰 속에서 삶 전체를 맡긴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습관적인 기도 시간이나 종교적 행위를 넘어, 삶의 모든 결을 하나님의 마음과 숨결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자리에 서게 되면 우리의 기도는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더 이상 내 욕망을 관철시키기 위한 간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고, 그분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기도로 바뀝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일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변화되도록 내어드리는 것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존 칼빈 역시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에서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기도가 문제 해결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존재가 새롭게 빛어지는 자리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상처와 고통이 있습니다. 가족 안의 어려움, 관계의 아픔, 경제적 무거움,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해 읊부짖게 됩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귀한 눈물입니다(롬 8:26).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문제 해결에서 머무르는 것을 넘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보고, 다시 해석하고, 다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 길 가운데서 우리는 문제의 해결을 넘어, 마음의 성숙과 영혼의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기도는 하나님과의 조율(調律)입니다. 내 생각과 감정, 욕망과 계획들이 하나님과 부딪혀 불협화음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점점 그분의 마음과 같은 소리를 내도록 조율되는 시간입니다. 이 은혜가 이루어질 때, 기도는 더 이상 "응답을 받아내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복된 여정이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그분의 뜻이며, 그 기도는 평안과 지혜, 사랑과 분별이라는 영적 열매로 맺혀 갑니다. 기도는 결국,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새롭게 빛으시는 과정입니다. 그곳에 진짜 응답이 있고, 그곳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 2. 나눔

- 위 글을 읽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면 서로 나누어 주세요.

→ \_\_\_\_\_

- 사람들은 흔히 기도를 "문제 해결을 위한 요청"으로 이해합니다. 당신이 이해하는 기도는 어떤 것인가요? (예: 간구 중심, 친밀함 중심, 습관적 행위 등)

→ \_\_\_\_\_

-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뜻을 이루어 주세요"보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는 태도가 자연스러운가요? 아니면 어렵게 느껴지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_\_\_\_\_

- 요한복음 15:7에서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어떤 모습인가요? (일상의 루틴, 말씀, 선택의 기준, 감정·태도 등에서)

→ \_\_\_\_\_

- 최근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고 느껴진 순간 혹은 "말씀과 멀어진 것 같다"고 느껴진 순간이 있다면 나눠보세요.

→ \_\_\_\_\_

- 기도하는 중에 내 생각이나 감정, 원하는 것이 바뀌었던 경험이 있나요?  
(예: 용서할 마음이 생김, 우선순위가 바뀜, 불안보다 평안이 찾아옴 등)

→ \_\_\_\_\_

- 아우구스티누스와 칼빈은 기도를 “마음이 하나님께 변화되는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요즘 기도 속에서 변화되길 바라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 \_\_\_\_\_

- 기도의 목적이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조율”이라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서 가장 먼저 바꾸고 싶은 부분은 무엇인가요? 내 삶에서 어떤 부분이 ‘조율이 필요한 부분’으로 느껴지나요?

→ \_\_\_\_\_

### 3. 함께 드리는 기도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뜻을 관철하려 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맞추는 사람 되게 하소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 욕망과 계획이 주님의 마음과 멀어져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깊이 거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여 기도할 때 우리의 관점이 바뀌고, 우리 존재가 새롭게 조율되게 하시며, 하나님과 더 깊은 연합 안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우리의 문제와 필요를 아뢰되, 그보다 먼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성숙한 기도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